

무안공항 이용객 매년 급증하는데 ...

전남도, 항공사 손실 지원금 되레 늘어

국내선 30%, 국제선 50% 지원... 7년간 13억 지급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매년 급증하는데도 무안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손실 재정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11년 9만1000명, 2012년 9만6000명,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7만8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서는 상반기 이용객만 17만2000명에 달해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처럼 무안공항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도 전남도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실 재정 지원금은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제정된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무안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국내선은 운항 손실액의 30%(상한액 5000만원), 국제선은 운항 손실액의 50%(상한액 1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8년 2억4700만원, 2009년 1억원, 2010년 1억6800만원, 2011년 1억9000만원, 2012년 1억5700만원,

2013년 2억3000만원, 2014년 2억3800만원 등 총 13억3000만원을 항공사들에 지급했다. 2009년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정 지원이 늘어난 셈이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10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국 동방항공 1억7800만원, 대만 부흥항공 5000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 전세기 유치 여행사에도 2013년 4억1000만원, 2014년 3억8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이용객이

급증해 항공사 적자폭이 적을 것 같지만 정기편수가 늘어난 데 따른 탑승률 저조 현상으로 항공사 손실액이 커져 지원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여수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도 손실 재정 지원금을 주기로 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했다.

무안공항에는 국내선 1개 노선(제주)과 국제선 3개 노선(베이징·푸둥·톈진)이 운항중이며 여수공항에는 국내선 2개 노선(김포·제주)이 운항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원중공업, 울촌산단에 공장 준공

118억 들여 ... 9월 정상 운영 산업용 전동기 철심 제조 전문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주)동원중공업이 20일 울촌 산단에서 공장 준공식을 했다.

산업용 전동기 철심 제조 전문업체인 동원중공업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10개월만에 118억 원을 투자해 최신식 공장을 준공해 100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밖에 신설된 공장은 장비 안정화 시범 운영 기간을 걸쳐 9월 중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력제품인 산업용 전동기 철심을 과거 연간 2만대에서 5만대

까지 확대 생산해 주 거래처인 효성과 한국터보, 하이젠 등 부품 수요가 많은 모터생산 기업에 납품함으로써 연매출 13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원중공업은 취입 이후 제가 직접 나서 유지한 기업들 가운데 투자를 실현한 준공 1호 기업"이라며 "인근 해룡 산단에 설립 추진 중인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전남도 연구·개발 사업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이규연 대표는 공장 위치인 여수시 등에 1000만원의 인제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승권씨 임명

전남도는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김승권(60·사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장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남지사는 "김 내정자는 전남복지재단 대표에게 요구되는 업무전문성과 경험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평가했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전과사실도 없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의 문제는 잦은 주소변경 등 의심의 소지는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및 본인의 소명 등을 종합해볼 때 그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강

성취 전남도 의원은 "지사의 결정이 미흡하지만 도지사의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장단점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시해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도의회는 결과보고서에서 "김 내정자는 복지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남복지재단의 역할 제고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이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인쇄산업지원센터 개소식

20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인쇄산업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행사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인쇄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5년 소공인특화센터' 운영 사업에 지역 최초로 선정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경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꼭 필요”

정부, 웅천지역 거점형 마리나항 선정에 유치 청신호

전남개발공사 “1조원 유치 세계적 휴양관광지 만들것”

정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상지역 선정을 앞두고 여수 경도가 호남권 유일의 복합리조트로 선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 경도는 경쟁 지역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대규모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근의 여수 웅천지역이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복합리조트 조성전인 2019년까지 국내 최대의 마리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

어서 복합리조트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0일 “여수 경도에 투자규모 1조원 이상의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컨소시엄 3곳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기본제안서(RFC)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문광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는 현재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8월 중 2곳 안팎이 선정될

예정이다.

여수 경도를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은 국내 기업 2곳과 중국계 기업 1곳으로 개발 계획을 담은 제안서와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법인 일반현황, 재원조달 계획, 자기 자본 투입계획서,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 협약서 등을 제출했다.

복합리조트 투자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5성급 호텔 1000실, 케이볼가·워터파크 등 테마 시설, 면세점 등 쇼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호남권 최초의 외국인카지노와 일반 면세점 등을 갖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특히 여수 경도는 65만평 규모의 사업부지가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까지 마무리 된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을 운영중인데다 15만 규모의 국내 3번째 크루즈 전용부두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다.

여기에 경도 인근의 웅천지역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여수시가 822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요트 300척이 계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낙후된 전남의 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큰 축으로 복합리조트 유치는 꼭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복합리조트 선정에 유리한 점도 많은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

다음달 3~4일 접수

광주시가 광주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20일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 공모 접수를 다음달 3~4일 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지역과 연령 제한이 없다. 행정 및 경영마인드와 복지분야 전문 지식, 풍부한 경험 등 복지재단 운영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재단이사회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최종 1명을 내정한다.

내정자는 9월 4일로 예정된 시의회 인

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재단 임원추천위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광주복지재단은 기존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에 장애인 등 광주복지재단의 기능을 합한 것으로 이른바 광주형 복지정책을 끌고 갈 핵심이다.

주요 기능은 복지정책개발 및 보급, 지역 복지사업 추진, 복지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 상담 등이다.

대표이사외 사무처장 아래 정책개발팀, 복지사업팀, 행정지원팀, 지역사회 서비스팀 그리고 장애인지원담당 밑에 기획팀, 자립생활지원팀 등 1단 6팀 21명으로 임직원 규모는 모두 117명에 달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돌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ix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 후기 아간 및 백반,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